

2015년(제33회)도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행공고

법원행정고등고시는 오는 2015년 6월 8일(월)~12일(금) 원서접수를 거쳐 8월 22일(토) 1차 시험이 예정돼 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9월 11일(금) 발표되고, 논문형인 2차 시험은 10월 3일(토)부터 4일(일)까지 이틀간 치러진다. 마지막 관문인 3차 시험(면접)은 12월 10일(목) 실시된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10명(법원사무직렬 8명, 등기사무직렬 2명)이다. 지난해부터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유예제도가 폐지돼 올해는 1차 시험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이 시행된다.

법원행시는 지난해부터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유예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마지막 유예생들이 2차시험을 치렀고 올해부터는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들만을 대상으로 2차시험이 시행된다.

유예제도 폐지와 함께 1차시험 합격자 배수는 최대 10배수까지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사무직 69명과 등기사무직 16명이 1차시험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유예생을 고려한 최대 범위까지 합격자를 선발한 것이다.

1차 합격인원의 증가하면서 2차시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법원사무직은 유예생 33명을 포함해 102명이, 등기사무직은 유예생 25명을 더해 25명이 2차시험을 치르며 각각 12.8대 1, 1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도 2차시험 경쟁률이 법원사무직 7.38대 1, 등기사무직 7.5대 1이었고 2012년에는 각각 6.13대 1, 5.5대 1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쟁이 2배가량 치열해진 셈이다. 이 같은 경쟁률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시는 선발인원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1차시험의 벽이 유난히 높은 시험으로 꼽힌다. 올해는 유예인원이 없는 만큼 1차시험 합격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의 기대가 높다. 유예생 없이 치러지는 첫 시험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